

효율적인 존대법 교육 방안 연구

-불가리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김소영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1. 서론

한국어는 존대법이 아주 잘 발달된 언어이다. 주체존대, 상대존대, 객체존대 등 존대법의 체계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한국어의 존대법은 대명사, 호칭, 존대지칭,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등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단순한 언어적 행위가 아니고 화자, 청자 그리고 화제상의 대상 인물 간의 사회적 인간관계, 대화 상황 등이 연관되는 사회언어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언급되는 사람까지도 포함시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지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존대법을 가르칠 때 단지 문법 규칙으로만 가르친다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존대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불가리아 학습자처럼 존대법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슬라브어를 모국어로 가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의 존대법은 수사, 조사와 함께 가장 어려운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존대법이 전통적 한국 사회구조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존대법을 가르칠 때는 통사·형태론적인 특성과 함께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인 각도에서 존대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외국인이 존대법을 배우고 나서 어린아이에게 존댓말을 쓰거나 자기를 낮추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존대법의 발화 행위의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언어 교수법의 변수가 되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장소, 학습 목적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존대법 지도 방안을 찾아 보려고 한다.

2. 화자를 지칭하는 방법

브라운과 레빈슨(1978:178)은 존대(deference)관계를 지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의 한가지는 화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자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화자를 지칭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청자를 높여주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지칭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화자는 주로 대명사, 가족이나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 그리고 처소 지칭어로 표현된다.

2.1.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는 예사말인 ‘나’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사말 ‘저’가 있다. 이 두 대명사의 선택 기준은 화자와 청자와의 나이, 성, 사회적 지위, 친소 관계인데, 이런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① 사회적 지위

대명사 ‘나’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인 지위가 같거나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을 때 쓰이고, ‘저’는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낮을 때 쓰인다. 그러나 사회적이 지위가 달라도 화자와 청자가 친한 사이라면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주로 대명사 ‘나’가 쓰인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서로의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도 친근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아이가 할머니와 대화를 할 때나,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친구인 경우 지위가 달라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나’를 쓴다.

② 나이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같거나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를 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저’를 쓴다. 그런데 친한 사이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에게 말을 할 때,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훨씬 적지만 예사말 ‘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친한 선후배 관계에서 나이가 적은 후배라도 겸사말 ‘저’ 대신 ‘나’를 쓰는 경우를 많다. 이런 경우에는 존대법 사용에 친소 관계가 나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③ 친소 관계

서로 잘 알거나 친한 사이라면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예사말 ‘나’가 많이 쓰인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는 ‘저’를 사용하여 격식을 갖추고 청자를 높여준다.

④ 성

화자와 청자의 성도 예사말 ‘나’와 겸사말 ‘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50대 이상의 부부 간의 대화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내가 ‘저’를 쓰고 남편은 ‘나’를 쓰는 경우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한국 가족의 영향을 받아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 층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놓고 존대법상으로 서로를 차별화하지 않은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예사말 ‘나’와 겸사말 ‘저’는 구문론적인 제약을 갖게 되어 종결어미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즉, 자신을 낮춤으로 청자를 높임의 의미를 갖는 겸사어 ‘저’는 ‘-어요, -습니다’ 등의 높임형 종결어미

와만 쓰이고, ‘-어, -ㄴ다, -네’ 등의 낮춤형 종결어미와는 어울릴 수가 없다. 하지만 대명사 ‘나’는 종결 어미 형태의 선택 제약이 완화되어 있다. 즉 높임형 종결어미와도 어울릴 수 있고 낮춤형 종결어미와도 공기할 수 있다. 이는 ‘나’가 지니는 존대 특질상의 무표성 때문이다 (김미형 1995:96). 화자 지칭어 ‘나’와 높임형 종결어미 ‘-어요’의 공기는 공적인 관계¹에 있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화자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거나 나이가 적은 청자를 대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자에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자지칭어 ‘나’의 사용으로 사회적인 상하 관계를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우해주는 뜻에서 높임형 종결어미를 쓴다.

2.2. 친족어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일인칭 대명사 ‘나’대신 쓰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적은 어린이일 경우 많이 나타나는데, 친족어는 일인칭 대명사 ‘나’보다 더 친근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1) ㄱ. 명수야, 엄마가 맛있는 것 사줄게.

ㄴ. 혜민아, 누나가 사탕 줄게. 울지마.

이런 친족어는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쓰이고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아줌마, 아저씨, 언니, 누나, 형 등의 호칭은 어린이 청자와의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데, 친한 정도와 관계 없이 널리 쓰

¹ 비공식적 관계에서도 ‘나’와 높임형 종결어미가 어울려 쓰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의 대화에서 ‘나’와 함께 종결어미 ‘-어요’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인다. 이런 친족어는 다른 화자 지칭어보다 친근하게 들리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나이와 성이다. 예를 들어, 남성 화자는 자신이 청자의 아버지 나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나’ 대신 ‘삼촌’을 쓰고, 청자의 어머니 연배의 화자는 ‘이모’나 ‘아줌마’라는 친족어를 1인칭대명사 대신 쓴다.

(2) ㄱ. 애들아, 할머니한테 와라.

ㄴ. 학생, 아줌마 좀 도와줄래? 이 짐 좀 들어줘.

(1)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가족 관계로 묶여 있지만 (2)에서는 화자와 청자는 서로 이해 관계도 없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화자지칭어로 1인칭대명사를 대용한 친족어는 상대방에게 더 친근감을 준다.

2.3. 직함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은 친족어와 같이 청자가 어린이일 경우에 많이 쓰인다. 주로 선생님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과의 대화에서 많이 쓴다.

(3) 선생님이 설명해줄 테니 잘 들어라.

이런 경우에는 화자가 높임의 뜻을 더하는 조사 ‘님’을 사용하여 자기를 높이는데, 이것은 화자가 청자의 입장에 서서 교육적인 면도 고려한 말씨로 간주된다. 즉, 감정이입(empathy)을 통하여 화자는 청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청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2.4. 처소 지칭어

전화 통화나 편지, 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모호한 점이 있어 적절한 호칭이 없을 때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 지칭어가 사용된다. 이런 처소 지칭어는 대명사나 다른 명칭의 사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하 관계나 친밀 관계를 우회할 수 있다.

(4) (슈퍼마켓 직원에게) 그럼, 언제 이쪽으로 배달해 줄 수 있어요?

(4)는 화자와 청자가 사회적으로 상하 관계나 친분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니라서 존대법을 드러내는 대명사나 다른 명칭 대신에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처소 지칭어를 사용한 것이다.

(5)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기는 다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 ‘여기’는 화자인 ‘아버지’를 대신한 것일 수도 있고, 화자와 함께 사는 다른 가족을 함께 묶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불가리아어에서는 대명사를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지칭어 대신 사용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у нас’는 전치사와 1인칭 복수 대명사가 함께 쓰인 것으로 ‘우리 집’을 의미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3. 청자를 지칭하는 방법

한국어에서 청자를 지칭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2인칭대명

사, 친족어, 직함, 사람 이름, 처소 지칭어 등이 있는데 이런 청자 지칭어는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런 청자 지칭어의 선택 기준은 사회적 지위, 나이, 친소 관계, 성, 결혼 여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단일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이한 것은 한국어는 불가리아어와는 달리 청자 지칭어를 사용하지 않고 높임형 종결 어미로 청자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종결어미는 인칭, 수, 성에 따라 변하지 않고 높임의 정도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한다.

3.1. 2인칭 대명사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너, 자네, 자기, 당신, 임자’가 있는데 이런 대명사는 청자를 높이는 의미가 없어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2인칭대명사 대신 ‘직함+님’, ‘친족어’ 등이 쓰인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의 친소 관계, 나이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화자와 청자가 부부이거나 친한 친구나 잘 아는 동료일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친근감, 존대 등)를 지니게 되지만,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쓰게 되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나 친한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쓰이는 ‘당신’은 서로를 존대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지칭어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낯선 사람에게 ‘당신’을 쓰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뜻을 지니게 된다.

2인칭 대명사를 친밀감, 존대, 나이, 성에 따라서 특성을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너	자네	자기	당신	임자
친밀감	±	+	+	±	+
존대	-	+	-	+	+
나이	-	+	+	+	+
남자	+	+	+	+	-
여자	+	-	+	+	+

3.2. 친족어

친족어는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친족어가 자주 쓰인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합한 친족어를 선택하여 쓰는데 이러한 친족어는 상대방을 높여주고 친근하게 들린다.

- (1) ㄱ.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께 이 색이 아주 잘 어울려요.
 ㄴ. (가게 점원이 중년부인에게) 아주머니한테 이 옷이 아주 잘 어울려요.
 ㄷ. (길에서 청년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짐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1ㄱ)에서 화자와 청자가 가족관계에 있지만 (1ㄴ)과 (1ㄷ)에서는 화자와 청자는 가족이 아니고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지만 친족어 ‘아주머니’, ‘할머니’을 씌으로써 상대방을 존대하고 친밀감을 표현했다.

3.3. 직함

직함은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2인칭대명사를 대신하여 청자

지칭어로 쓰인다. 2인칭대명사는 존대의 의미가 없고 사용에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직함이 많이 쓰인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는 직함에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님’을 붙여서 상대방을 존대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보통 조사 ‘님’을 직함 뒤에 붙이지 않는다.

(2) ㄱ. (사장이 과장에게) 김과장, 이 서류 좀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ㄴ. (과장이 사장에게) 사장님께서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ㄱ)처럼 청자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직함 앞에 청자의 성을 붙여서 사용하고, (2ㄴ)처럼 청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직함에 조사 ‘님’을 붙여 존대의 뜻을 표시한다.

3.4. 처소지칭어

화자와 청자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이거나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경우 적절한 청자지칭어를 찾기 어려울 때 처소지칭어가 사용된다. ‘거기’, ‘그쪽’ 등의 처소지칭어는 존대어는 아니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도 아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남녀가 서로를 부를 적당한 말을 찾기 전에 처소지칭어로 상대방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3) ㄱ. 그쪽은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ㄴ. 난 수영을 좋아해요. 그쪽은 어떤데요?

(3)은 처음 소개받은 남녀의 대화인데 화자와 청자가 잘 모르

는 경우에 처소지칭어를 사용하여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잘 아는 경우에도 전화통화나 편지 상에서 처소지칭어가 종종 쓰인다. 이외에도 ‘집’이나 ‘댁’처럼 처소개념이 있는 명사도 2인칭대명사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집’은 화자와 청자가 동갑이거나 청자가 나이가 더 어리고 서로 잘 모르는 관계에서 쓰인다.

(4) (처음 만나는 비슷한 연배 여자에게) 집이는 나이가 어떻게 돼?

성인들 사이에서 잘 모르는 청자에게 서로간의 상하 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2인칭대명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소 개념이 있는 ‘집’을 대명사 대신에 씀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다.

3.5. 테크노미니 (teknonymy)

테크노미니는 청자 아이의 이름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등의 친족어를 붙인 것으로 2인칭대명사나 호칭 대신에 자주 쓰인다. 이것은 화자가 청자의 아이의 관점에 서서 청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5) ㄱ. (남편이 아내에게) 철수 엄마, 나 물 좀 줘.
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수진이 엄마는 마음이 어찌면 그렇게 넓어요?

(5ㄱ)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는 ‘큰 아이 이름 + 엄마, 아빠’로 서로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결혼

한 성인인 경우 가족 내에서는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친족어나 테크노미니를 많이 쓴다. (5ㄴ)처럼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경우에는 주로 테크노미니를 2인칭대명사 대신 쓰게 되는데, 이는 2인칭대명사가 지니는 제약적 특성 때문이다.

4. 존대법 수업 지도 방안

불가리아 학습자는 불가리어와는 다르게 복잡한 한국어 존대법을 문법으로 습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불가리아인의 사고 방식과 문화가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존대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 그래서 한국어 존대법을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존대법을 화용론적, 사회언어학적으로 새롭게 분석하여 존대법을 화자와 청자의 지칭 방법과 연관시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존대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존대법 수업 지도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1) 준비단계

비디오, 테이프, 사진 등의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여러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 나이, 친소 관계, 성 등이 다른 화자와 청자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관찰하게 한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말을 찾아내도록 하고, 어떤 상황에 존댓말과 반말을 쓰는지 설명하도록 한다.

2) 전개, 제시 단계

한국어에서 화자와 청자를 지칭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불가리아어와 비교하여 대조언어학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적 지위,

나이, 성, 친소 관계 등이 어떻게 화자와 청자 지칭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설명해 주고, 상황 별로 나누어서 존대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불가리아 학습자가 만든 존대법과 관련된 비문을 제시하고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교정하도록 한다.

3) 활용 단계

두 사람씩 짝을 짓거나 몇 명씩 그룹을 나눈 후에 교사가 상황을 제시하고 등장인물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서로간의 관계, 성 등을 알려주고 각자 역할을 맡아 대화하도록 한다. 30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화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녹음한다.

4) 정리단계

녹음한 것을 들어보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찾아내도록 한다. 교사가 최종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

다음은 소피아대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실제로 역할극을 시킨 것을 녹음하고 전사한 것이다. 역할극을 하기 전에 등장 인물의 나이와 관계, 대화가 벌어지는 상황과 간단한 이야기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하였다.

저녁식사 시간이다. 경은이를 제외한 모든 식구가 집에 있다.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끝내고 식구들을 부른다.

어머니: 어머니, 저녁을 드시러 오세요!

여보, 저녁을 드세요! 애들아, 저녁을 먹으세요!

할머니: 알았어.

아버지: 갈게요.

아들 민수: 가요.

아들 현수: 가요.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민수: 여보세요!

경은: 경은이에요.

민수: 누나 어디에 있어요?

경은: 오늘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을 거예요.

잠시 후

어머니: 누가 전화했어요?

민수: 누나가 밖에서 저녁을 먹는대요.

아버지: 요즘 경은 씨가 바쁘고 날마다 늦게 와요.

할머니: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수: 누나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바빠요.

민수: 어머니, 밥을 더 주세요.

식사 후, 어머니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다. 조금 후 현수를 부른다.

어머니: 현수야, 할머니께 과일을 갖다 주세요.

현수: 네.

민수: 어머니, 저한테도 과일을 주세요.

어머니: 좋아요.

이 대화문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는 존대법 사용 방법을 정

확하게 몰라서 생기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 지위가 더 높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존대 표현을 쓰고 누나와 동생도 서로가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학습자 모국어의 간접 현상인데, 불가리아말을 한국어로 직역해서 어색한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러 오라는 어머니의 말에 ‘와요’라고 남편과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이것은 불가리아어의 ‘идвам’을 ‘와요’라고 직역한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외국인들, 특히 불가리아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한국어 존대법을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고 효율적인 존대법 교수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한국어 존대법은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사회 구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 범주로만 가르치면 실제 사용에서 자주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 존대법이 단순한 언어적 행위로서가 아니고 발화 행위의 참석자의 특성과 사회적 인간 관계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짚기나 그룹 활동을 통해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김미형(1995). 한국어대명사. 한신문화사.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교육 9권 1호.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이영숙(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 교육한글 16~17호. 35-57쪽.
Brown, P., Levinson, S.C.(1987). *Politeness*. Cambridge.